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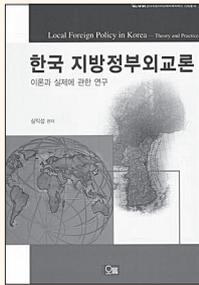
해외정책공유 관련 책 소개

민동환 연구원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19세기 민족주의의 등장과 함께 지난 20세기는 주권국가가 세계의 주역으로 국민을 이끌어가는 국가중심주의가 일방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의 중심은 국가였고, 국민이나 지방정부 등의 대외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와 세계화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지방외교라는 단어는 생소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가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국제적 상호존의 확대와 다원화로 인하여 국제교류의 벽이 서서히 낮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른 도시화 문제의 해결책은 국가가 아닌 도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국가외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시 포함)의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지방정부외교론 (2006)

심익섭의 **한국지방정부외교론(2006)**은 지방외교에 관한 이론적 배경, 법적근거 등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생소한 도시외교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방외교와 관련된 책들 대부분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내 독자들은 지방외교에 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

다. 하지만 이 책은 해외사례와 함께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외교 활동 현황,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등을 설명하여 독자들이 지방외교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해외건설사업, 이제는 전략이다 (2012)

과거의 지방외교는 단순한 도시간의 우호 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외교가 우호친선을 넘어서 교류도시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건설사업, 이제는 전략이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핵심전략 제언(2012)**은 최근 지방외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간의 정책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인 인프라외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태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건설외교 분야에서 화두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해외건설외교사업의 성장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낮은 외화기득률, 해외 건설전문인력, 원천기술 등의 해외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해외건설 사업 시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해외시장의 개척에 유리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근무자들 중 해외 인프라 정책 전파 또는 시장개척을 하는 업무를 맡은 분들에게 업무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13가지 전략 중 중요한 전략 몇 가지를 소개 하겠습니다.

① 마음을 담은 중장기적 관점의 건설외교활동

건설외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씨를 뿌린다는 자세로 상대국 공무원과 자주 만나 친분을 쌓는 등 지속적인 건설외교활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신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기구의 원조활동을 적극 활용

국제기구의 원조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발주되는 프로젝트를 잘 살펴보면 큰 시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장을 공략하려면 정보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다.

③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전략

해외사업 수주 경쟁은 사실상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민간기업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안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도움을 적극 요청하고, 공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을 측면지원하여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④ 초기단계에서 시장을 선점하라

개발에 관한 법령과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시장에 진출한다면 제도과 원칙을 우리의 방식대로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초청연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외교와 해당지역 주민의 신뢰를 쌓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받는 것 중 일부를 돌려주는 미덕을 발휘하라

초기에 중국이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 들어갔을 때 환영을 받았으나, 지금은 시각이 바뀌고 있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인들이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현지인들과 융화 되지 못하고 현지인을 거칠게 다루면서 나쁜 여론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저개발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시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지양하고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